민주 '반값등록금' 공론화 가속도

사립대 등록금 '거품빼기' 등 대책 제시

야당과 정책연대·토론회 여론몰이 병행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정책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공립대 재정지원을 통해 사립대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단계별 등록금 인하 대책을 내놓고, 대학 총장 간담회와 반값등록금 토론회를 잇달아 여는 등 여론몰이에 전력하고 있는 것.

손학규 대표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토론회에 참석, "등록금 문제는 민생 중의 민생 문제"라며 하반기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포퓰리즘이란 일부 지적에는 "국민의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일단 반값등록금 정책의 초점을 국·공립대 재정지원에 맞춘 상태다. 9500억 원을 투입하면 국·공립대의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립대에는 재정 건전화와 구조조정 압박을 통해 등록금에 낀 '거품'을 빼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관철을 위해서는 전체 대학의 80%에 육박하는 사립대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학교는 학교대로 재단을 건전화하고 재단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적극 책임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은 "사립대학들이 변칙적인 적립금 전입이나 비용 추계 같은 것을 서슴지 않고 해왔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김영진 의원은 반값등록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총장들을 향해 "민생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민심의 흐름에 동의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논의의 초점이 사학재단 개혁으로 옮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등록금 이슈가 이념 논쟁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과거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사학 및 종교계와 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사립대 트라우마'로 사립대와 마찰을 피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사립대 문제에 대해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물론이고 자유선진당도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어 연대의 틀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민노당은 지난달 말 '정부책임 등록금제 도입을 위한 5대 입법안'에 사학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한편, 한나라당도 다음주 중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발표할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는 ▲국가장학금 제도 활성화 ▲명목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 문제 ▲대학 미진학자의 사회 진출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값등록금 당장 실현하라" 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촛불대회 보장을 촉구하는 각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위) 아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학부모 모임' 출범식에서 등록금 투쟁을 선포하고 있는 학부모들. /연합뉴스

4년차 MB 참모진 개편 '호남은 없었다'

靑 정무수석 김효재·홍보수석 김두우 내정

비서관급 60여명중 광주·전남 출신 단 1명

김효재 정무

김두우 홍보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 홍보수석에 김두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을 내정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에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 정무 2비서관에 김회구 인사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민정1비서관에 신학수 총무비서관, 대변인에 박정하 춘추관장이 선임됐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단 한명도 기용되지 않아 쇄신과 소통의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진석 정무수석과 홍상표 홍보수석 교체를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청와대 개편에서는 국민권익비서관에 조현수 한나라당 예산결산위 수석전문위원, 국민소통비서관에 김석원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시민사회비서관에 김혜경 여성가족비서관이 내정됐다.

춘추관장에는 김형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지식경제비서관에 강남훈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 자원개발 정책관, 여성가족비서관에 이재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인선됐다.

총무비서관과 정무1비서관은 해당 수석과 협의를 거쳐 추후 임명될 예정이며 정책실에 대한 인사에 대한 인사는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인사는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을 막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인사에 대해 쇄신과 소통보다는 친정체제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단 한명도 기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0여명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박재영 행정자치비서관이 유일하다.

임태희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재보선 이후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고 청와대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어 개편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기부금입학제 반대"

김성식 정책위부의장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9일 대학 기부금입학제 도입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도, 저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리 국민은 기회균등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 기부금에 여러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신입생에게 입학을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우리 국민정서상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비정규직 확산 방안과 관련,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쓰는 관행을 줄임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확산을 방지하고 차별을 줄여가는 방안들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내 하도급에 대해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을 가하는 방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공공기관과 공기업부터 비정규직확산 관행을 줄여가고 최소한 고용보장이 될 수 있는 직제로 개편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檢·靑 '쌍끌이 공세'

김진표 원내 "청와대 참모진 개편 꼬리자르기" 압박

민주당은 9일 저축은행 비리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 여권과 검찰을 향해 추가 의혹을 들춰내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전 대표의 조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방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금감원이 애초 요청한 '직무정지 6개월'에서 '1개월'로 징계수위를 단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현직 검사의 개입설을 제기했다.

그는 "징계수위를 대폭 낮추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가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표 동생인 박지만씨가 신삼길(구속)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 대해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명한데 대해 "친구라는 의미는 관포지교처럼 목숨을 나누는 사이에서부터 오늘 만나 내일 헤어질 수 있는 사이까지 스펙트럼이 하늘과 땅"이라며 의혹 확산을 시도했다.

그는 특히 "본인이 아니라 밝혔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는 박 전 대표 발언을 겨냥, "제왕의 집안과 일반 서민 집안을 완전히 갈라놓는 특권의식의 발로로, 국민이 끝이라고 해야 끝"이라며 "박 전 대표 가족이 성역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 방침을 되돌리려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여야 합의사항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지만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꼬리 자르기 인사'라는 의혹을 안 받으려면 청와대는 왜 인사를 하는지, 누구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 중수부 폐지 '없었던 일'로

한나라당이 9일 애초 민주당과 합의했던 '대검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 폐지'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이하 의총)를 열고 중수부 폐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발언에 나선 16명의 의원 중 15명이 반대, 찬성입장을 밝힌 1명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 시기에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또 검찰 직제에 관한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 아닌가 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황우여 원내대표는 "중수부 폐지 문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당에서 일정한 의견을 갖고 지침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이 부분도 당론 채택을 하자는 의견이 많아 참고하겠다"며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압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중수부 폐지 문제는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과 관계없이 국민의 의견과 우리당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준공
• 대 지 : 10980㎡, 임야 : 13937㎡
케모마일 23평형 3개동, 케모마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완비 ,수려한경치,수련원,기도원적합 여유대지많음,계곡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9천포함) • 실투자금 :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율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건물1095㎡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율촌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승계가능) • 실투자금 :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델리움후문부근 코너
• 대 지 :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녹지
• 답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 전,답 :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아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잡종지 : 8480㎡ 공장부지 : 3192㎡외 잡종지 담양옥과방면2차선 도로접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임야:47000평, 단층건물:250평 (5동)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약초 재배단지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자연녹지 : 700평 ▶일반공업지역 : 8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높 이 : 8, 9, 10.9m
▶호이스트 :유, 유, 유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 ☎ 016-644-4265, FAX.523-8558

조선이공대학

2011년 소상공인진흥원
국비지원 성공창업 패키지교육

조선이공대학 산학협력단과 '프랜차이즈서비스창업과'가 공동 진행하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이 지원하는 무료창업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회차	일 자	교 육 과 정 명	교육인원
1	6.20~7. 1	월수익 1천만원 이자카야 주점 창업반	20
2	7.11~7.22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1인창조기업 창업과정	20
3	8. 8~8.20	남도향토음식 상품화와 성공창업과정	20

프랜차이즈 서비스 창업과 NAVER 카페 bxb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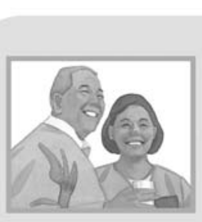
정 원
- 각 과정별 20여명 선착순 모집

교 육 비
- 무료 (단, 현장학습비 5만원 별도)

특 전
- 교육 이수자는 중소기업청 국가정책자금(4.25% 변동금리) 우선지원대상 및 소상공인진흥원장 수료증 수여

교육문의 학과실 (062)230-8410
cafe.naver.com/bxbx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돋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큐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서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½정을 3~7일 정도를 연속 으로 섭취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